

전통문화교육기관
제2세대교육기관

매일교육으로서의 YWCA
한정교육으로서의 YWCA
전통문화교육으로서의 YWCA
한정교육으로서의 YWCA
수업교육으로서의 YWCA

(한정문화인류기) 전통문화교육
P0

무엇 → 어떻게 다변화교육
기관 → 전통으로
한정교육을 대상 → 구체로
해주는 것이 → 스스로 하는

제32회 한국 YWCA 연구대회
"성별평등교육, 전통문화교육"

국제문화교육
전통문화교육

국제문화교육으로서의 YWCA → 80년대 이후
전통문화교육의 장려사업

전통문화교육기관
전통문화교육기관
2002. 민족문화 국제화 증진사업
연구, 실행, WSSD
25인 전통문화 증진사업

90년대 문화 Project
40년전

매일 Leadership
YWCA의 Hardware

매일 Forum

YWCA Volunteer

Grand Parent
30년전

전통문화교육

94년

전통

한국YWCA 창립 80주년 기념 좌담회

< 일 정 >

일 시 : 2002년 3월 21일 3시

장 소 : 연합회 회장실

사회자 : 임국이 대한YWCA연합회 실행위원·출판홍보팀 팀장

참석자 박영숙 전 대한YWCA연합회 사무총장

60 박용옥 대한YWCA연합회 기획위원회 위원

박혜란 대한YWCA연합회 사회개발위원회 위원

이동원 이대 사회학과 교수

김은경 대한YWCA연합회 사무총장

월간 <한국YWCA> 편집부는 창립 80주년을 맞아 YWCA 운동을 되돌아보며, 100주년을 향한 YWCA의 비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922년 창립한 YWCA는 지난 80년 동안 여성·환경·평화·청소년·소비자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면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 54개 지역에 회원YWCA를 확장하고 8만 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는 회원운동체로 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성장과 더불어 저희 YWCA의 고민도 더욱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급격하게 변화되어 가는 우리 사회의 조류에 신속하게 발 맞추어 가자면 YWCA 역시 끊임없는 노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를 바탕으로 여성이 만드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YWCA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할 지에 대해서 참석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과거 80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의 우리가 어떤 정신을 이어받아야 하는지, 현재 극복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인지, 100년을 향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동안 YWCA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신 선생님들이기에 이번 좌담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좋은 말씀들이 저희 YWCA가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데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좌담회 참석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구요, 아래에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YWCA연합회 최정은 간사 드림

■ YWCA 여성운동 ■

한국YWCA는 1922년 창립 이래 여성계몽운동을 시작으로 애국애족운동, 농촌계몽운동, 생활개선운동 등을 통해 일제 하에서 여성들이 애국심과 사명감을 갖고 삶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당시 유교적 관습 하에서 억압받던 여성들을 위해 조혼, 공장제도 폐지운동을 처음 시작하였고 해방과 6.25 전후에는 재건운동과 전쟁고아, 무의무탁 소녀 기술교육 등 전쟁으로 폐허가 된 사회 속에서 여성교육과 재건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러한 일련의 운동은 1960년 국가부흥,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본격적인 근로여성운동, 여성인권운동으로 연계되어 향후 7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여성운동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여기서는 70년대 이후 한국YWCA 여성운동을 운동의 영역별로 정리하고 그 활동이 현재의 여성정책과 어떻게 연계되고 발전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 근로여성 위한 사업 및 여성노동자 인권운동

경제개발과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등장한 도시빈민, 소외된 근로근로여성 문제에 초점을 두고 1973년 25회 전국대회에서 '정의와 평화의 사회를 위하여'를 운동주제로 채택, 근로여성의 지원 향상운동을 시작하였다. 6개지역 1,500명 대상의 근로여성 실태조사를 통해 열악한 근로여성의 실태를 사회 이슈화하기 시작하였고 근로여성 생활수기 공모, 근로여성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상담활동, 청계천 평화교실, 여성노동자 시민교실 등을 통해 저소득층 근로여성 교육과 인권을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초래된 나이 어린 근로여성들의 인권보호의 필요성을 사회에 알렸고 근로현장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제도적인 대응책을 정부에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정부의 공적 개입을 소외된 여성계층부터 시작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 직업개발 및 교육사업

1975년 여성의 해 특별사업으로 여성들의 새로운 직업개발 사업에 참수, 1979-1982년까지 여성의 직업개발을 중점사업으로 전개한다. 1976년 서울Y 독산동 근로여성 회관 건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성직종개발과 직업훈련에 돌입하여 도배, 타일, 페인트 기술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새로운 직종개발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파출, 간병인, 산후조리사 파견사업 등을 통해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육아, 가사노동 등을 사적영역에서 공적영역으로 환원시키는 인식변화를 가져왔고 다양한 직종개발과 여성직업의 영역 확대로 여성 스스로 자신감과 직업인으로서의 의식변화를 가져왔다.

이처럼 새로운 직종개발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많은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물론, 근로여성의 저임금 및 남녀 임금격차, 취업기회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고 기혼여성 재취업도 증가하였다. 또한 노동부 요청으로 여성 직업안내소를 개설하여 여성직업 알선을 해오고 있다.

직업개발사업은 시대적 변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성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였으며 직종과 직업에 대한 전통적인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여성자립과 사회참여를 증진시켰다.

90년대 이후에는 건축설계, 피부관리사, 장신구 디자이너, 탁아모, 전문음식점 경영훈련 등

12. Y23대리

“생명을 귀하게, 삶을 새롭게”

제32회 한국YWCA전국대회의 주제는 “생명을 귀하게, 삶을 새롭게”입니다. “생명을 귀하게”라고 한 것은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런던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인 Paul Jenkins는 그의 “새로운 세계질서”라는 책에서 오늘의 생명의 위협요인으로서 전쟁, 굶주림, 인권 탄압 그리고 생태계 파괴 현상을 들면서 이들 문제들은 서로 맞물려 있으며 환경문제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분리해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빈곤과 인권탄압을, 빈곤은 환경파괴와 인권탄압에 대한 반발을 그리고 환경파괴는 빈곤의 원인이 되고 동시에 빈곤해결을 위한 개발은 환경파괴의 요인이 되는 등의 연쇄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일에 이어지는 푸로그램 중점의 발제와 토의에서 최근에 그리고 현재 우리가 不安해 하고 있는 전쟁위협과 평화문제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논의가 되어질 것을 고려해서 저는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Program 중점의 방향제시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생태계 파괴현상은 지난 200년간의 산업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자연자원을 소모해서 많이 만들어 내고 많이 써서, 많이 버리는 오늘의 우리들의 생활양식에 의한 것이므로 이미 대회 주제는 문제와 함께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생명위기 극복의 첫째 과제는 우리의 생활양식 즉 소비태도를 변혁하는 데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최근까지 모든 것을 인간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왔습니다. 지구와 생물권이 인간만을 위해 창조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동양과는 달리 자연을 정복대상으로 여겨 왔던 서구인들의 사고와 행동에서 더욱 그래왔습니다.

우리 인류 처음으로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보게 된 것은 불과 20여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인간이 발견하게 된 것은 지구가 우주의 中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구가 하나의 작은 행성에 불과하며 인간이 생물권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인류의 사고의 전환은 제2의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이며 동식물과 무생물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인간에게 유익, 무익을 불문하고 독자적인 존재의 권리와 양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0년대 초에 지금은 작고하신 서남동교수님이 새로운 세계사조를 소개 하시면서 곤충이 살아야 인간도 살 수 있다고 하신 것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 합니다.

저의 집 대문 앞에 큰 감나무와 야경등이 나란히 서있습니다. 동리의 터주대감인 옆집 부인의 말이 야경등이 세워진 이후 감나무에 감이 적게 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후 어느 신문에서 새로 건설된 아파트지역 에서 가까운 논에서는 벼의 생산량이 줄어들었다는 기사를 보고 놀란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밝은 전등 빛에 의해 밤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감나무도 벼이삭도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단잠을 자야만 제대로의 기능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제대로의 기능을 할수 있을때 인간도 생존할수 있다는 설명은 (될 수가 없을 줄

김기영

로 압니다.

또 하나의 現 세대인의 잘못된 생각은 만물의 삶의 터전인 생태계가 마치 현세대인만의 것인양 우리가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말한대로 우리는 지구를 선조에게서 물려 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서 빌려쓰고 있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인 미래세대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만큼의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 우리들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결단을 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으며 바로 이 대회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62년 농약의 문제를 파헤친 Rachel Carson의 「침묵의 봄」과 70년대초의 Rome club의 「성장의 한계」 보고서가 세계인에게 충격을 주었을 때만 해도 경제개발을 통해 잘살아보자는 일념으로 우리는 별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물문제를 비롯해서 공기, 식품, 산업공해병, 무뇌아탄생문제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최근에는 활발한 환경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무뇌아를 낳고 보니 산모는 몸 안에 공장지대가 들어선 느낌이다. 젖을 짜면 흘러 내리는 허연 폐수와 아이 배꼽에 매달린 비닐봉들, 저 굴뚝과 나는 간통한게 분명해!" 라는 최승호의 "공장지대"라는 제하의 시 첫머리 글에서 가슴 섬뜩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급부상한데에는 오늘의 환경파괴현상이 한국가 내에 머물지 않고 전지구적으로 확산되어 마침내는 인류의 공유자산인 "오존층 파괴"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지구환경의 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72년의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와 92년의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 그리고 최근 Manchester에서의 지구포럼을 비롯해서 수많은 크고 작은 환경관련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환경은 계속악화 일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인물 4 페이지에 수치를 제시한 대로 세상을 온통 환경문제로 떠들석하게 했던 리우 지구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었던 12일간에도 어김없이 인구증가, 차량반출, 산림훼손, 바다에 기름유출 및 쓰레기의 투기 그리고 엄청난 양의 탄산가스와 오존층파괴 물질인 염화불화탄소의 방출이 여전했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지출된 세계 군사비의 일부만이라도 적절하게 쓰여졌던들 죽지 않았을 312,000명의 어린이가 굶어서 생명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 순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20%의 세계인구가 80%의 세계자원을 소모하고 있는 개발된 국가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입장과 나머지 20%의 자원에 매달리고 있는 세계인구는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생존유지를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신흥개발국들은 소위 말하는 선진국의 생활수준을 따라잡기 위해 환경문제는 고려할 여유가 없다는 입장에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의 지구환경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인식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사항의 합의도출은 안되고 있습니다.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 사이의 또는 특수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사이의 이해대립이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남북간의 이해대립의 하나의 예가 바로 가난한 나라의 인구증가문제와 잘사는 나라의 소비태도 문제 사이의 논쟁일 것입니다. 부유한 나라의 경우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나라의 인구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가난한 나라의 주장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수 10배의 자원을 소모 하는 부자 나라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논쟁은 지구환경보전문제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라질 환경과 개발 회의에서 의제에조차 올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더욱 어려운 것은 지구환경문제 해결의 열쇠가 당장의 편이를 선호하기 마련인 유권자를 의식하여 단기적인 안목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정부와 이윤에 집착할 수 밖에 없는 기업 특히 다국적 기업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강대국과 강자의 논리에 의해 만들어지고 움직여지고 있는 세계의 정치 경제, 경제, 사회구조와 체제 속에서 지구환경의 보전과 복구작업은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해결의 길은 없는가? 현상황에서 세계는 민간단체 활동에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국제적인 압력으로 밖에는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저는 분명하게 한국YWCA에 속한 우리들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풀어내야만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YWCA는 전형적인 민간단체로서 국경, 국적, 계층, 계급 등 일체의 벽을 넘어서 연대하고, 주장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국익에 매임없이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할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둘째로 한국YWCA는 과학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혜로 다스리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동양 문화권에 속해 있어 더불어 사는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데 근거를 둡니다.

셋째로 YWCA의 구성원이 생명의 담지자인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여성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은 아직 쓰여져 보지 않았기에 미지수이기는 하나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능성 또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생명의 위협으로 떨 수 밖에 없는 세상으로 만든 것은 동양, 약자, 여성이 아닌 서구, 강자 그리고 남성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남아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여성에게 있지 않을까요? 남성에게는 더이상 맡길 수가 없으니까 여성이 대안이 된다고도 할 수 있구요 그런데 여성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여성들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결의 기구에 전달하느냐 하는 것마저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92년 리우 유엔 환경과 개발회의의 178명의 정식대표중에는 여성이 10명도 되지 못했습니다.

1975년 여성의 해로 선포하고 동등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유엔회의 자체에서조차 여성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연출이 필요 했는데 예를 들면 유명 연예인들을 동원 하는 것이 있습니다.

92년의 리우 지구포럼 에서는 미국의 여배우 쉐리 맥크레인을 비롯한 다수가 그 몫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유엔이 갖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유엔이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시각은 여성은 인구억제를 위한 또는 쓰레기 배출 억제를 위한 교육대상자로 아니면 부당하게도 피보호자로 간주되고 있는 청소년 및 토착민과 한류음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성의 인간화 문제는 수단으로서가 아닌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여성의 삶의 조건은 여성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2월 중순 대만에서 개최된 바 있는 "94 지구여성정상회의"에서 발제의 기회가 있었는데 여성들의 의결기구에서의 평등한 참여를 성취해 내기 위해서는 세계여성들의 연대한 힘으로서,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무역 등에 환경규제를 하듯이 성차별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라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의해 보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세계는 국가의 힘이 약화되는 반면 유엔기구, 민간단체, 다국적기업 등과 같이 사회적 조직의 힘이 커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제로 지구의 반이상을 떠받치고 있는 여성이 꿈을 가지고 힘을 합친다면 여성차별과 환경수탈의 장벽을 무너뜨릴 상상밖의 힘이 생기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 원칙은 국가단위에도 적용됩니다.

"생명을 귀하게, 삶을 새롭게"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제32회 한국YWCA전국대회가 국내외적으로 아주 중요하고도 적절한 시기에 개최되고 있는 점을 주시합니다.

그만큼 책임도 막중한 대회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이 대회가 21세기를 향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아직 냉전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특히 최근의 북한의 불확실한 상황에 의해 전쟁의 위협마저 느끼고 있으나 세계는 지금 80년대의 동서냉전의 종식으로 새로운 세계질서 모색에 부심하고 있으며 오늘의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구환경보전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대로 오늘의 지구환경문제 해결은 남북간의 또는 국가간의 이해대립으로 그 해결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다가는 동서냉전이 남북전쟁으로 이전되어 핵전쟁이 아닌 지구환경의 보복으로 인류는 물론 생태계가 파멸될 우려가 있다고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한국YWCA는 오늘 이러한 교착상태를 완화하고 지구시민사회의 새로운 윤리기준으로서의 "하나의 세계 건설"에 얼마나 공헌할 것인가 하는 시험대에 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충분히 그 기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95년에 한국YWCA의 주도적인 책임하에 한국에서 세계YWCA대회와 그에 앞서 북경대회에서의 NGO포럼 준비를 위한 세계여성 지도자 회의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유엔이 주최하는 제4차 세계여성대회가 이웃나라 중국 북경에서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여성대회야말로 세계여성의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구이기에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되는 것은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통념에 입각한 통상적인 목소리여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의 목소리에 또하나의 목소리를 보태는 수준에 머물러서도 의미는 없습니다.

새롭고도 주체성있는 목소리여야 합니다.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95년도에 유엔에서는 기구개편을 예정하고 있어서 세계여성들이 이번기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변혁을 성취해 낼 수도 있다는 데서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야말로 한국YWCA의 능력과 지도력을 국제적으로 과시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적으로는 95년에는 지방자치선거, 96년에는 총선, 그리고 97년에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국민의 주권행사가 연이어지는 주요한 시점에 이 대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95년의 지방자치선거는 우리나라에 보다 완전한 시민사회시대와 생활정치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민주사회에서의 투표권 행사의 중요성은 재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성차별은 물론, 약자차별, 환경오염, 농촌과 농업의 위기, 빈부의 격차,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 문제 등이 산적해 있는 우리 현실에서 각급의 의결기구 및 집행기구로 하여금 "정의로운 사회" "더불어사는 사회" 윤리에 입각한 정책을 펴게 하기 위해서는 각선거에서의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가 올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있을 지자체 선거와 총선에서 얼마나 많은 수의 여성을 의결기구에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성계에서는 활발한 논의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YWCA에서도 이번 대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YWCA가 이 부문에 있어서 보다 큰 책임을 자각해야 하는 이유는 YWCA가 지금까지 가장 많은 인재를 배출 했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한 가능성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YWCA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95년도에 세계YWCA대회와 세계여성지도자회의의 준비로 인해서 그보다 수개월 앞서 있을 지방자치선거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는 이유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를 놓친다는 것은 앞으로의 5년을 놓치는데 끝이는 것이 아닌 그다음 5년도 어렵게 만든다는데 있습니다

한번 자리가 굳혀지면 더군다나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여성들이 뚫고 들어가기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YWCA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대단한 것입니다. 창설 이래 회원들과 지도자들이 쌓아놓은 업적, 공신력, 도덕성, 조직력, 그리고 영향력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자산은 YWCA만을 위해 묶어두어서는 안되는 한국의 모든 여성의 고유자산입니다.

한국YWCA가 세계YWCA와 더불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계여성의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시기에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서야말로 한국YWCA의 자산을 백분 활용하여 한국의 그리고 세계에 여성운동의 분기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역사적인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여성운동, 국제적운동, 시민운동, 회원운동, 청년운동 더더욱 기독교운동으로서의 한국YWCA가 이번 대회에서 도전해야 할 사명은 막중합니다. 해야 할 사명을 외면하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예전과 다름 없이"로 만들거나, 지나치게 겸양해서 관망자가 되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한국YWCA가 이번대회에서 설정하려는 프로그램 중점인 생명운동, 바른생활운동, 생협운동 그리고 회원운동을 한 국YWCA의 prgram 중점으로서만이 아닌 세계YWCA운동 나아가서는 세계여성운동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한국YWCA의 과제에 대한 몇가지 제언을 말씀 드린다면:

첫째 오늘의 지구가 요구하고 있는 생태적 삶운동으로서의 생명운동과 바른생활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의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 실천을 위한 결단을 이끌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행태의 수정은 쉬운 것이 아니어서 지구환경위기의 주범인 우리 가진자들의 자원낭비의 생활양식의 변화의 징조나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중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의 경우 "생활수준은 흥정대상이 될 수 없다"고 까지 하기에 이르러 브라질 회의에서도 이 문제는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펴낸 환경관련 또는 환경과 여성자료에서 보면 "지속가능한 삶"의 성공사례는 하나같이 사막화되어가는 자연 속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삶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데 한정되어 있는 데에서도 지구환경 위기극복의 문제점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연내용을 준비하고 있던 어느날 텔레비전에서 아주 재미있는 Program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구에서 인기프로인 Opera의 토크쇼였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당신의 생활을 간소화 하세요"라는 내용으로서 연예인이기 때문에 많이 가질 수 밖에 없는 자기의 옷을 비롯한 화장품 등 모르는 사이에 쌓여 있는 자기의 소유물을 경매에 부쳐서 모은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각자의 생활을 어떻게 간소화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색다른 Program이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그의 옷을 보관하고 있는 방들은 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YWCA는 이번 대회에서 생태적 생활양식의 model을 개발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95년 북경대회에 제시할 수 있다면 지구환경보전에 크게 공헌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한국YWCA는 세계YWCA대회와 북경대회에서 그 동안의 국제대회 논의에서 배제되거나 외면당했던 생활양식개혁을 위한 논의를 모든 회의의 의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YWCA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92년 지구정상회의에서 강자들에 의해 의제에서 배제된 다국적 기업, 전쟁, 핵, 군사비, 인구, 빈곤, 도시화 그리고 화석연료 사용문제 등 지구환경보전의 핵심 문제들을 모든 국제회의에서 논의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들의 해결없이 지구환경위기는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국YWCA는 세계평화와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 생명운동을 회년정신으로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보다 더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요즘보다 이 운동의 절실함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누적된 오류현상을 원상으로 되돌려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한다는 회년정신의 발취는 분단의 고통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하는 데에도 중요하지만 계속 부익부, 빈익빈의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구조 및 체제로 치닫고 있는 세계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도 오늘의 교착상태에 있는 지구환경을 살리기 위한 방책으로서도, 그리고 답보상태에 있는 성차별의 문제 해결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시작하는 회년운동을 우리가 사는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로 우리는 환경문제에 있어서나 경제문제에 있어서 국경이 없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화 또는 세계화 추세에서 국제운동으로서의 7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YWCA의 역할은 각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YWCA는 세계YWCA의 정상급 회원국이 된지도 수십성상이 지났습니다.

YWCA의 창시국인 영국의 YWCA마저 이제는 하나의 사회기관으로 남아 있는 것에 비해 한국YWCA는 지금까지 사회운동적인 특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은 대단한 강점이고 자랑입니다.

이러한 한국YWCA가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향상시키는 일에 공헌해야 하는 것도 과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GNP와 교역량이 각각 세계의 15위와 12위인 서울의 국제화 수준은 방콕과 마닐라에도 뒤지는 46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발전상을 여성의 지위로서 평가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여성의 지위는 의회진출기준으로 세계의 155개 국가중 142위라는 사실은 YWCA는 주목해야 합니다.

국제회의 개최빈도로 평가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세계YWCA대회나 세계여성지도자회의를 유^지친 YWCA의 공은 큼니다.

그러나 한국YWCA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큰 몫을 할 국제기구 유치에 있어서나 국제기구에의 한국 인력진출을 위한 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 속에 뿌리를 보다 깊게 내릴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95년 지방자치선거 이후 우리나라는 지역주민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지역사회의 살림을 책임지며 환경을 지키는 시민자치 時代에 접어들입니다.

어느 때보다 더 시민운동 전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생활운동으로의 YWCA는 환경운동의 대중화 및 민주사회의 튼튼한 기초가 될 수 있는 지역단위 소집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므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의 질서를 우리사회에 정착시키며 3년간의 program 중점을 실효있게 성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UR국면에서 더욱 크게 부각이 된 문제로서 우리나라의 농촌과 농업의 위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 환경처의 92년도 연구보고서에서 세계가 21세기에 들어서면 10억이상의 세계인구가 식량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로 미루어보아서도 농촌과 농업을 살리는 일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YWCA는 초창기의 농촌운동과는 그 내용을 달리 하지만 그와 같은 정신으로 유기농법장려, 유기폐기물의 퇴비화, 화학농약대신 생물농약개발 그리고 직거래운동 전개등으로 우리의 농촌과 농업을 살리는 운동을 농촌지역사회운동으로 부활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어떤 조직체이건 그조직체의 장래성은 그 조직체에 속해 있는 청소년층을 보고 예측합니다.

청소년층의 참여의 폭이 넓을수록 사회에의 지도력 배출의 잠재력도 커진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현재 사회 각 부문에서 활약하고 있는 YWCA출신의 여성지도력은 대부분이 Y-TEEN 또는 대학

YWCA활동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며 그 경험이 지도력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운동 전개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유엔에서 먼저 인정한 사실입니다.

한국YWCA의 50~70년대를 되돌아 보면서 오늘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한국YWCA의 청소년 운동의 약화라는 문제를 지적해 둡니다.

이런 과제들을 실현해 내기 위해서는 YWCA의 기구 개편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강조 합니다. 한국YWCA의 제32차 전국대회는 아주 중요하고도 절절한 때에 "생명을 귀하게, 삶을 새롭게"라는 오늘의 세계가 요구하고 있는 핵심적 주제하에 개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 모인 전국의 YWCA에서 대표로 참석하신 여러 대의원의 책임은 무겁습니다.

세계적으로는 150여년의, 국내적으로는 7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막강한 자산을 거니고 있는 한국YWCA가 기독교정신으로 결단만 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제 참석한 한 Seminar 에서 한 발제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감옥을 탈출한 사람들의 이야기 기억하는 뽀빠용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꿈을 꾸었는데 법정에 선 그가 자기는 법을 어긴 일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항변하는 데 대해 법정은 그에게 시간과 세월을 낭비한 것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이유로서도 우리는 시간과 세월을 낭비 할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과정을 통해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구절이 반복되었던 좋은 피조물들이 오늘날 "내가 지어낸 사람이지만 땅 위에서 쓸어 버리라. 공연히 사람을 만들었구나 (창세기 6.7)"하는 하느님의 한탄이 터질 수 밖에 없는 생태계 위기의 오늘의 현실에서 한국YWCA의 책임, 그리스도인의 책임, 한국 여성의 책임을 무엇인가?

인간과 하느님,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간의 관계를 바로잡는 일이 우리 모두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종훈련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IT 관련분야 여성교육 기회 확대 등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제안활동과도 연계되고 있다.

■ 남녀차별 근절과 여성 권익향상을 위한 법률제정 추진 운동

1952년 친족상속권 차별조항 철폐운동을 최초로 시작한 것을 계기로 60년대에는 친족 상속법의 개정과 가사 재판소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197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족법 개정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UN 세계 여성의 ('75)와 여성차별철폐협약에 크게 영향 받아 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가두시위, 서명운동, 대국민 홍보운동, 편지보내기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1977년 일부 수정된 가족법 개정을 이루어낸다. 그러나 당시 유효된 호주제도와 동성동본 불혼제도는 아직도 중요한 여성정책 과제로 현재 여성단체 연대 호주제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 국회 청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직장 내에서의 남녀차별 근절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행원 결혼각서 폐지운동, 여성조기정년 폐지 운동, 여행원 승급차별 금지 등 직장 내에서의 남녀차별 근절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통해 대졸 중견 여은행원 공개채용시험, 최초의 여지점장 탄생 등 상징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를 통해 고용시장에 나타난 여성의 불평등문제를 사회적으로 인식시켰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1990년대의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의 출발점이 되었다.

■ 여성권익향상과 인권보호

1984년 11월 3일 학생의날 시위로 연행된 여대생의 '경찰 성추행 사건'을 여론화시키고 청와대 등 관련부처에 건의문을 보내는 등 성추행사건을 최초로 인권침해로 고발하였다. 당시 만족할만한 법적 조치를 얻지는 못했지만 이는 성을 매개로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운동이었다. 또한 사회 소외계층문제에 관심을 갖고 1979년 장애인 사업을 전국사업으로 채택, 장애인 부모교육,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변화 운동**, 승차권 우선제도 건의, 장애자의 성(性)문제, 재활센터 설립을 위한 모금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특수교사 양성가 교육의 필요성 등을 건의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에 장애우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기 시작했고 장애인 인력활용에 대한 정부 및 기업의 인식전환과 90년대에 들어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되어 **11개 분야 97개 세부법**이 추진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농촌여성 대상의 영양특별사업과 생활개선운동**,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 정신대 진상규명 및 보상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정신대 문제는 당시 37개 여성단체 연대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결성, 정신대문제를 국제적인 여성 인권문제로 알리고 일본 역사 왜곡 진상규명 및 역사적 사실 시인을 위한 운동으로 계속되고 있다.

또한 성매매 근절을 위한 실태 조사사업 및 인신매매 추방 위한 청소년 교육,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이는 1989년 **윤락행위방지법 개정운동**으로 이어졌으나 당시 부분 개정에 그쳤다가 최근 여성단체 연대로 **윤락행위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상정 중이다. 또한성폭력 추방운동과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추방운동과 가정폭력 상담활동, 여성 쉼터 운영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최근의 가정폭력 특별법 제정과 성폭력특별법 제정 등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법 제정운동의 기틀이 되었다.

■ 육아, 탁아, 가정복지 서비스 증진

80년대 일찍이 노인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인건강 증진, 장년기 인력활용 방안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창립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에 종합노인복지센터인 '은학의 집'을 개원,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복지사업으로 과밀학급 및 학교시설 개선운동을 전개했으며, 일찍이 70년초부터 근로여성 자녀를 위한 아동시설을 서울, 광주, 춘천 등에서 운영하던 경험을 살려 1988년 인천Y 시범탁아소를 개원하여 맞벌이 자녀를 위한 탁아사업을 민간 위탁으로 처음 시작했고, 지역탁아모 훈련, 방과후 교사 훈련을 기획, 실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보육시설의 확충을 사회적 역할로 강조하였고, 이후 정부와 민간의 어린이집, 방과후 교실 설립이 증대되어 여성의 사회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미취학 아동의 공교육화와 육아휴직제의 현실화, 맞벌이부부 자녀의 보육시스템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 대상의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 여성 대상 재가복지 서비스 활동과 결식아동 급식사업, 청소년 공부방 및 상담실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 여성 정치참여 및 여성지도력 발굴, 육성 사업

남녀불평등을 개선하고 양성평등한 사회구현을 위해서는 사회 곳곳에 여성들이 참여하고 지도력을 발휘해야 함을 강조하며 꾸준히 여성지도력 발굴 및 육성, 교육사업을 전개하였다. 특히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이 정부의 여성정책으로 천명됨에 따라 중앙 및 지자체의 각종 의회, 행정부문에의 여성참여를 위한 여성 할당제 30% 요구 연대운동을 전개했으며, 선거법 개정운동, 비례공천 할당제, 공명선거운동을 전개하였다.

■ YWCA 환경운동 ■

■ 환경시민운동의 기초작업 - 교육을 통한 의식제고 활동 중심1

1964년부터 YWCA는 환경문제는 경제발전에서 온 것이며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정책과 기업활동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며, 국민 각자가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한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의식은 공해 및 자연과 생활환경을 해치는 도시계획과 경제 활동에 반대하고 필요한 경우 고발을 하거나 법정 소송까지 제기해야 한다고 하는 매우 선진적인 수준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러나 환경문제를 철저히 거부하는 정부로 인해, 실제 환경운동은 계몽 및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환경정화 또는 자연보호운동 등 수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한 활동으로는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인식전환운동, 자원절약을 위한 폐품은행, 자연보호 캠페인, 휴지줍기, 나무에 팻말 달기, 꽃메아리 운동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인천Y를 중심으로 국내외Y가 함께 참여한 공해물질 방출산업 반대운동은 환경문제를 구조적으로 접근하여 70%이상 진척을 보았던 공장 건설을 취소시키고 공해에 대한 여론을 크게 일으킨 중요한 운동이었다.

■ 환경운동의 시작 - 환경실천활동과 정부건의활동 중심

1980년대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와 부문운동으로서 환경운동이 자리잡기 시작하

면서 Y의 환경운동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아래 성장제일주의가 낳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북한산 개발에 관한 공개좌담회, 합성세제 표준량 쓰기, 밧데리 사용에 관한 지침서 마련, 내프킨 형광물질 조사, 수은 건전지 수거함 전국배포, 수질오염 대책에 관한 교육과 전시회, 재활용 쓰레기 수거운동 등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Y운동은 이전의 단순한 자연보호 수준을 넘어 환경과 파괴적인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생태계의 보존을 위한 성격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나 그 문제를 정부나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정도로 그저 강한 사회개혁적 성격을 가지지는 못하였다.

■ 환경운동의 활성화 - 생명운동 시민운동으로 전개된 환경운동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이르는 Y환경운동은 자연생태계 파괴를 일으키는 요인에 대한 근원적인 시각 전환을 요한다는 자각을 가지면서 군축문제와 핵문제 등 삶에 반평화를 가져오는 구조적인 문제들까지 환경이슈로 포함시키는 생명운동의 차원으로 나아갔다. '심각한 환경오염 및 자원훼손현상은 오염에 대한 개개인의 책임감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으므로 환경보존에 대한 정부 및 기업의 철저한 시책과 함께 국민 스스로의 책임의식으로 확산시키도록'의식을 주지하는 일에 역점을 두었다. 개인이 일상적으로 생명처럼 호흡하고 만나야 하는 근원적인 차원인 땅과 물 그리고 공기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이 문제를 시민들의 생활차원에서 벌여야 한다는 판단 아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운동을 벌였다. 주요 운동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시범운동과 분리수거, 재활용 운동, 합성세제 정량쓰기 운동, 환경운동 지도자 교육, 맑은 물 보호운동, 수은건전지 수거 캠페인, 생협운동, 아시아지역 환경회의, 세계Y 실무자 초청 간담회, 환경보존 심포지움, 유해물질 제조 공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요구 건의활동, 낙동강 폐놀오염사태에 대한 긴급 건의활동, 북한산 개발 반대운동 등을 들 수 있다.

■ 공동체운동, 생활 실천운동으로서의 환경운동

1990년대 중반이후 YWCA는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모든 환경이 하나의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건강한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평화로운 생명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이를 위해 인간과 자연의 모든 생산, 소비, 분배활동이 건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Y의 환경운동은 회원을 비롯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을 운동 기반으로 하는, 운동의 결과가 각 시민들의 삶 속에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화 운동, 생활공동체운동, 식품안전성 및 생명존중운동, 환경교육 및 생활환경지기단 활동,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 화장실문화 개선운동 등을 들 수 있다.

■ YWCA 평화통일 운동 ■

한반도의 통일은 지난 50여년간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소원이었고, 이를 위해 민간차원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통일에 대해 이중적인 생

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즉 민족의 통일은 원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의 통일에 대해서는 우려와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통일교육원 김석향 교수의 지적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낮고, 통일과정에 대한 평가가 다소 부정적이며, 통일 이후의 사회에 대한 것으로는 경제적 부담과 이질감으로 인한 혼란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의 통일의식 조사」, 통일연구원 1999)

따라서 그동안 YWCA의 평화통일운동은 직접적인 북한여성과의 만남이나 북한 방문보다는 일반 시민들, 특히 어린이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평화통일 교육에 중점을 두었으며 통일 이후의 사회에서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통합교육, 통일 이후 사회 대비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에 주력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10여년간의 YWCA 평화통일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2002년 지자체 선거 관련 YWCA 평화통일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 소그룹 연구 활동 및 평화교육

1986년부터 '북한바로알기 모임'이라는 소그룹 중심의 평화통일 연구모임을 전국YWCA 단위에서 시작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어린이, 성인 대상 평화통일 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평화통일 캠프,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 평화통일 여성 지도자 모임

1994년 중국 연변에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 1996년 뉴욕에서 '세계평화와 여성연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비록 북한여성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열렸지만 조선족 여성 대표와 해외동포들(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캐나다, 한국 6개국 90여명 참가)이 참여하여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향후 통일사회를 위한 여성의 역할을 모색해본 역사적인 만남이었다.

■ 북한Y 재건 운동

YWCA는 1980년대부터 북한YWCA 재건운동을 시작, 분단 이전에 북한에서 활동했던 5지역의 YWCA(안주, 선천, 의주, 원산, 평양)재건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 기금마련을 해오고 있으며(현재 약1억 2천만원), 남북 YWCA가 공동으로 NGO 여성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대북지원 활동

배고픔과 추위에 떨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기독교적 사랑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지난 1998년부터 북한동포돕기 운동을 시작하였다. 우선 1998년, 1999년 2차에 걸쳐 약 25t(1억원분량)의 분유가 북한의 유아 및 어린이에게 전달되었고 2000년 12월부터 '북한동포 사랑의 내북보내기 운동'을 전개, 성인 및 아동내북 11, 360벌(약 5천만원)을 전달하다. 또한 제주 YWCA는 제주도내 120개 단체와 함께 '북한감귤보내기 도민운동'을 전개하여 약 4,000만톤의 감귤과 당근 등을 지원한 바 있다. YWCA는 특히 북한 어린이 돕기를 위해 YWCA 소속 어린이집, 유치원 중심으로 연중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대상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만남은 통일 후 사회를 예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을 1회적, 시혜적으로 만나고 도와주는 방식에서 탈

피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삶을 통해 북한을 바로 이해하고, 그들의 사회 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남북 주민이 함께 통일을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결연 사업, 학습지도, 북한이탈여성 직업교육, 북한이탈주민 상담원 교육을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직접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 평화통일 정책 과제 제안 배경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산하 남북경제교류협력위원회 등 공동위원회가 설치되고 남북간의 신뢰회복 및 화해·협력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대화, 접촉이 확대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통일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참여가 제한적이며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89년 이후 남북여성교류의 목적으로 접촉승인을 받은 경우는 총 34건으로 종교분야 329건, 문화예술 분야 388건, 교육학술분야 560건에 비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통일과정과 남북교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통일과정에서 여성이 소외되는 것을 막고,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여성관련 제반 문제영역에서 여성의 권익을 반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남북간의 신뢰회복 및 화해·협력을 위한 통일정책 과정에 여성 참여가 확대되고, 남북여성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 YWCA 청소년운동 ■

■ 지역사회 자원활동

1922년 대한YWCA연합회가 설립된 이후로 현재까지 청소년 조직은 주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즉, 농촌활동, 야학, 구제사업을 주요 활동으로 전개하였다. 이는 종교적인 사회사업과 농촌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1970년대에는 사회문제와 발맞추어 여성노동자를 위한 평화교실, 시민교실 등을 열어 교육봉사활동을 담당하였으며 농촌에 가족 보내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농촌과 도시근교, 근로 청소년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 국제친선과 상호협조

국제지도력을 가진 회원 육성을 위해 국제 문제에 대한 모금활동, 국제지도력으로서의 비전을 위한 국제교류활동 증진, 해외 연수 및 국제 교류프로그램 개발 및 파견사업을 전개를 통해 국제적 마인드를 가진 청소년 지도에 노력했다.

■ 지도력 양성

창의적 청소년 활동과 지도력을 위해서 1980년대에는 청소년 상담훈련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고 청소년 성교육, 청소년의 참여, 발전, 평화 연구여행, Y-틴 생활교육강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청소년 교육세미나 개최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 지도력을 발굴하고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참여의 청소년을 위해 노력해 왔다.

■ 청소년 복지운동

1970년대부터 근로여성의 복지향상과 인간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YWCA는 저소득층의 문제를 사회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청소년, 소외계층 청소년, 결식아동, 결손가정 청소년의 자활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특별히 1980년대 이후에 후천적인 장애우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는 산업재해, 교통, 공해와 환경오염과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고 1979년 27회 전국대회에서 지체부자유아를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우에 대한 편견추방을 위한 계몽,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몽, 재활센터의 설립, 특수교사 양성과 그 방안 등을 위해 노력하였고 평등하게 참여하는 장애인 사업, 장애인 취업을 위한 간담회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는 건축법 등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하였고 장애인 문제를 인권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시민운동영역으로 기반을 마련하였다. 1990년도 후반에 들어서는 빈부의 격차가 커짐에 따라 소외계층 청소년에게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 아동 인권

1979년 유엔이 정한 “세계 아동의 해”를 맞이하여 어린이 해 특별사업 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린이가 어린이답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과밀학급문제 등의 학교교육제도 개선, 복지향상을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 청소년 인권 및 교육개혁을 위한 운동

1980년대에는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학교교육 현실의 개혁 뿐 아니라 대안적인 교육운동을 제시하고자 노력한 시기이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청년 등 젊은 여성지도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YWCA에서는 인간중심의 창조성 개발운동을 펼침으로 대안적 모델을 창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서 YWCA 내에 교육과 육성을 전담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청소년 위원회를 구성하여 1980년대 이후,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 공식 요구활동,

개선되어야 할 중등교육문제,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청소년 정책 및 교육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간담회, 청소년 단체활동의 공식인정을 위한 활동등의 청소년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과 더불어 YWCA안에서 할 수 있는 청소년 대안운동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1998년도에는 지역사회의 교육관련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청소년 단체활동이 활성화 되기 위한 학교, 지자체, 청소년 단체의 연계방안에 대한 모색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학교를 지원하는 활동이 진행되었다.

■ 다양한 운동영역 개발

통일운동 1990년부터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회 및 캠프를 진행하였고 평화통일을 위한 소그림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켰다.

또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오염에 캠페인, 토론회, 강연회 등 지역사회 환경기자단 활동, 무공해 비누 만들어 쓰기 운동, 교복물려주기 운동, 쓰레기 분리수거, 과소비 안하기, 자연보호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90년대 이후로는 환경보호운동을 녹색청소년 운동으로 발전시켜 환경교육, 환경지침서 제작, 다양한 소그림 활동으로 토론회, 독서활동, 사회교육, 봉사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봉사활동으로는 1922년 이후로 농촌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왔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활동으로 봉사기금마련을 위한 찾집 운동, 지속적인 결연봉사, 바자회, 고아원

방문 등의 자원활동, 장애우와 함께 하는 활동, 청소년이 만드는 장애우 한마당 등이 지역사회에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전개되었다.

■ 청소년 축제

1980년대 이후로는 청소년 문화가 부재한 상황에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창출을 위한 각학교 클럽발표회, 청개구리마당, 청소년 놀이마당, 달맞이 축제, 십대들의 이야기, 단오제, 청소년 음악감상회, 청소년 광장, 예술학교, 청소년 만화공모 등의 청소년 축제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전개하였다.

■ 청소년 유해환경

제32회 전국대회에서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매체와 사회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건전한 청소년 환경을 위해 유해매체감시활동, 러브호텔 추방운동 등 학교주변의 환경개선활동 등을 진행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는 지역사회 청소년 환경과 문화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 사랑업소 선정 및 업소사랑 편지쓰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환경을 선도하고 있는 업소를 발굴하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청소년들이 직접 모니터에 참여하고 시정을 촉구하거나 업소에 감사하는 편지를 직접 전달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문화 공간 마련을 위한 전국적인 운동을 전개하였다.

■ YWCA 소비자 운동 ■

■ 소비자고발운동

1968년 소비자 권익보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60년대 주로 교육, 계몽활동이 중심이던 것에서 점차 상품고발이 주류를 이루면서 국내 최초로 민간차원의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소비자 운동을 시작 "소비자고발센터"를 개설 운영하였으며, 1973년 서울YWCA회관에 '상설 소비자고발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현재 43개 회원YWCA에서 모든 소비문제에 대한 고발접수를 받고 있다.

■ 인권운동 차원의 소비자 보호운동

제 26회 전국대회를 통해 YWCA의 소비자보호운동을 기독교 운동체로서 '인권운동'차원으로 전개하였다. 소비자보호운동이 경제구조의 모순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기에 단순한 소비활동의 개선차원이 아니라 기업주의 각성과 경제정책의 개선이 요구되며 사람의 권리가 존중되는 인권차원의 운동이라는 이해에 도달하게 되면서 1977년 2회에 걸쳐 소비자보호운동 지도자훈련의 실시를 시작으로 소비자대회를 개최, 정부와 기업주에게 건의문을, 소비자들에게는 각성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보내기 활동이 이어졌다.

■ 생명운동으로서의 소비자보호운동

소비자운동이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생명보호운동이라는 차원에서 1980년대부터

각종 공해문제, 국가간의 가격 비교조사연구 사업을 하였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절감, 환경과 소비자를 접목시키는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과 “수은건전지 수거 캠페인”은 국민적인 호응을 얻은 국내 최초의 녹색소비자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재활용운동, 쓰레기 분리수거운동에 앞장섰으며, 1990년대에 「바른 삶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아나바다운동을 비롯하여, 바른 결혼문화 정착운동, 저절 문화 추방을 위한 모니터교육, 녹색휴가 보내기 캠페인, 우유팩, 종이컵 수거운동, 쓰레기줄이기 운동, 포장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 등 바른 환경운동을 전개하였다.

■ 청소년 및 대학생 소비자운동

1990년대 소비자 운동이 확산되면서, 단지 여성 및 성인중심의 소비자 운동이 아닌 전 생애적인 차원에서의 소비자운동이 강조되면서 점차적으로 소비주체로 등장하는 청소년 소비자 운동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청소년 아나바다 장터 개설, 청소년 소비자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2001년도에는 대학생 소비자대회를 통해 인터넷 아나바다운동, 대학생 소비자주권선언 등 젊은 소비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 및 활동이 실시되었다.

■ 지도력 개발 및 연대활동

1968년의 소비자개발센터를 시작으로 여론조사, 유해식품에 관한 좌담회, 상품전시회, 품평회, 실량조사사업을 실시하면서 소비자운동을 개척하였으며 소비자모니터를 모집, 200명을 운동 핵심요원으로 훈련하여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소비자운동을 전개, 저변확대를 도모하였는데, 당시 YWCA에서 활동하던 모니터들은 현재 각 민간소비자단체의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한국소비자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1975년 공정거래법이 통과되어 소비자권리보호가 제도적으로 보장을 받게되면서 1976년에 ‘소비자 보호단체협의회’ 발족의 주체가 되어, 소비자의 힘을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 운동체조직화 단계부터 시작 >

한국소비자보호회 창립

한국소비자보호회 창립

한국소비자보호회 창립

한국소비자보호회 창립

한국소비자보호회 창립